

7. 믿었더니 진짜구나!

요한복음 4장 43-54절

43. 이튿날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묵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든었더니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52.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구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었더니 진짜구나!” 아마 말씀을 마무리 할 때쯤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증거 하는 두 번째 기적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 아니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기적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이나 세례요한과의 만남이 이야기 등이 갈릴리 까지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43-45절 말씀.

43. 이튿날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특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 ‘표적’은 예수님 사역의 딜레마 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칭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 ‘나사렛’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리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에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예수님을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45절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알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들리니 더욱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구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기류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고 말입니다.

삶의 흔들림과 위기 가운데서 나아오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인간들의 약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인생에서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약함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희랍어 원어에 보면 ‘basiliko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nobleman’ 혹은 ‘royal officer’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앞에서 부모는 한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신분도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당시 목수라고 알려져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 앞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삶의 위기를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 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고,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약 32km 쯤 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거리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설 때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청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대어 성경에서 표현한 '애원했다'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beg'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아들 앞에서 왕의 신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48절을 보세요.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계시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냉정하게 들렸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왕의 신하'가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음 앞에서 절박하게 기적을 구하는 아주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일 뿐입니다.

진실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김정주 전도사가 쓴 [안녕, 기독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이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냐는 것이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일도 죄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김정주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8명이 집에 놀러왔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놔두고 잠깐 나갈 일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집에서 마음껏 놀고 다 해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냉장고는 건드리지 마라. 너희가 이걸 여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들은 전도사님이 없으니 신나게 난리를 치면서 놀았습니다. 이제는 마치 자기들의 집인냥 그렇게 놀고 있는데, 집 중앙에 있는 ‘냉장고’가 보입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야!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전도사님 집이구나!”

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이지’ 이 집 ‘누구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과 실체를 알게 한 ‘냉장고’가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악과 이야기로 다시 옮겨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유일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아마도 인간들은 에덴동산의 지배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때마다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는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 때 기억하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저것만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만드신 큰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면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조금은 차가운 반응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의 문’ 앞에서 그는 주님 앞에 애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절박함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 네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있다. 내가 행하는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고 말이다.

그런데 너의 마음을 보니 오로지 표적만을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아들을 살려달라는 너의 욕망만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있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나요? 우리들 중 아무도 이러한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욕망을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싶을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처럼 가지지 못한 하나의 대한 불만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선악과' 마저도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고 계셔도 지금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을 살리는 것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49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물려서지 않았다. “함께 가 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 .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서서는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과정이구나!

오늘 말씀에는 두 번의 믿음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절과 53절입니다.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라고 말씀 하실 때에, 50절에 보니 '**믿고 가** **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 아직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을 뿐입니다. “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도 단지 또 하나의 표적을 바라며 온 것이구나!”라는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와 예수님사이에 오고간 짧은 대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만을 보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달리 차가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시면서 가졌던 안타까운 마음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다 줄, 이전의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찾

아왔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었지만, 마음을 들켜서 민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주술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과 의지로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 자신이 떼를 쓰는 것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다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50절 말씀.**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은 논리적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그 분을 믿기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52절의** 말씀입니다.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예수님께 끝까지 조르며 아들에게 같이 가 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하지 않는구나’라고 한탄 하셨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려가다 ‘표적’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고치실지 방법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믿음은 단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말입니다. 그가 예상했던 방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는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니 그냥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 가다가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53절 말씀을 보세요.

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서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51절에 이미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려갔는데, 그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증’이라는 말이 적절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뭐고, 더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끝세, 내가 믿었는데, 그게 진짜야!”

그럼 ‘진짜야’ 확인하기 전까지 그 믿음은 가짜였다는 걸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감격하는 믿음이 있다!

어쩌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을 법한 편지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김병삼 목사님 최인숙 교장 선생님께
2009년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서남에 와서 만나교회를 등록하고 매주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늘 두 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남성성경공부에서 뵈던 목사님과 마더와이즈에서 뵈던 사모님, 도 사무엘의 교장선생님으로, 초하루 아이들 예배까지, 저희 가정에게는 항상 감사한 영적인 부모님이셨습니다.

남편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서 학교나 집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의 베트남행을 막으셨는데 일 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는 가야한다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믿고 10년간 정든 이곳을 떠나 베트남으로 가려합니다. 설교시리즈 시편의 말씀으로 매주 함내서 생활하면서도 갑작스런 베트남행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잉크하실 때 설교를 하시던 중 안경을 벗으시고 잉크하셨는데, 그 순간 10년 전 목사님께서 큰아이 서진이 새아기 축복을 해주시던 날이 생각나서 예배 후에 엄청 울었습니다.

서진이가 신생아일 때 안경 쓴 남자만 보면 너무 심하게 울어서 새아기 축복 때 아이가 울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몇 주간 기도했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안경을 쓰지 않고 예배에 오셔서 무사히 새아기 축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인사를 드리면서 왜 안경을 쓰지 않고 오셨냐고 여쭙봤더니 “아, 내가 오늘 깜박하고 9층에서 내려와서. . .”라고 말씀하시던 목사님 모습에 세심하게 기도응답을 해주셨구나 하고 기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잉크하실 때를 설교하시며 안경을 벗으시는데 그 10년 전 일이 생각나면서 “민경아,

내가 너 베트남 가라고 했으면 그 길도 함께 할 건데, 내가 필요하면 김병삼 목사 안경도 벗기는 하나님인데 걱정 좀 그만해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도 우리교회에서 배운 대로 잘 섬기고, 또 미디어교회로 함께 하며 좀 멀리, 좀 길게 인 앤 아웃 잘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 교장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 절제동산 김민경 집사 올림 -

왕의 신하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인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순간 왕의 신하가 이렇게 속으로 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었는데, 진짜네!”

“그래,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

그가 믿었던 믿음으로 인해 감격스럽고 기쁨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었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그 기쁨을 자신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복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표적을 구하며 믿음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믿음을 누군가에게 감격적으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가장 다급한 삶의 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